

신한독독 186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16
04



Globalization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의 힘!

Issue 1 - KINTEX 디자인학부 전시회
Issue 2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동기유발학기제
Issue 3 - 'PASSION 열정, 16인의 기독교인' 출판기념회

- 2016 CCM 경연대회
- 제2회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
- 울보시장 '최성' 고양시장
- 제 2대 대의원회 '대디'출범

날개 돋친 성장,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Book Together, Reading 4848 운동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목록'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학을 전시하다!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김병욱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Tel. 031-870-3266

• 발행일 2016.04.20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김민재 기자

• 디자인·기획 HeyListenAD Tel. 02-325-7090 • 정가 8,000원

Contents

- 01_ US.KOREA SOL. 1010. 599. GX
- 02_ 신한, The 센세이션
- 04_ 신한인 DNA
- 06_ KINTEX 디자인학부 전시회
- 12_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14_ 동기유발학기제
- 16_ 'PASSION 열정, 16인의 기독교인' 출판
- 24_ SHINHAN University Vision
- 26_ 제2회 신한류뮤직페스티벌 개최
- 32_ CCM 경연대회
- 36_ 을보시장 '최성' 고양시장
- 38_ 교내 유명교수_김태희 교수
- 40_ 국제어학센터 프로그램
- 44_ Super-varsity SHINHAN University
- 46_ 〈서시〉의 윤동주 시인
- 48_ Book Together, Reading 4848 운동
- 50_ 동아리총연합회 '동사무소!'
- 52_ 제2대 대의원회 '대디' 출범
- 56_ 날개 돋힌 성장, 공연예술학과
- 58_ 우리의 공모전
- 60_ 이모저모
- 64_ 대학발전기금
- 66_ 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_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
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2015 정시모집 경쟁률 8.81:1 **전국 3위**

창조와 융합·글로벌 **교육의 중심**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

가 !

- 스타교수의 비전으로 미래의 '신한인' 육성
- 컬럼비아대 박사 자동차 공학과 김태희 교수

‘ ’ DNA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정신적인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 하여 무시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출세지향적 배금주의가 점점 우리의 정신을 잠식해가고 있다. 삶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와 동일시하는 현실은 물질이 주는 표피적 행복에 만족하게 하는 대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표피적인 행복이 커질수록 진정한 행복의 영역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그리스도 정신 속에 있다. 그리스도는 고난(Passion)과 긍휼(Compassion)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 정신을 교육이념으로 거의 반세기에 걸쳐 이 땅에 진리의 길을 가르친 신한대학교는 우리에게 물질만능을 막는 방파제이자 행복의 문을 여는 교육현장이다. 이 방파제는 학생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미래의 행복을 예비하는 디딤돌이다.

2014년 종합대학으로 출범한 신한대학교는 단순히 취업에만 치중된 교육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신의, 성실, 근면의 학풍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융·복합교육으로 지식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기술과 문화의 조화로 또 다른 학문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신한대는 학생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딛고 재능을 발전시켜가도록 믿음직스러운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고유의 소질과 열정을 발견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은 물질주의로 흐르는 현실 사회에서 보다 빛나는 개성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정신'보다 '물질'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 물질의 흐름에 마냥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기독교 역사를 세우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미래를 빛나게 만드는 것. 이 눈부신 업적을 이룩하기 위해 신한대학교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값진 길을 걸어가야 한다. 참여하자, 신한인!

SHINHAN University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

!

‘Must - See’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KINTEX 제1 전시장에서 열린 2016학년 KINTEX 경향 하우스페어, 리빙 앤 라이프스타일(Living & Lifestyle) 페어에 홍보 부스와 함께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작품 전시에는 디자인학부 교수들과 공간디자인을 전공하는 3학년 고보라, 김원태, 마지민, 서정민, 윤호준, 전주혜, 황희지 학생이 참가했다.

학생들이 출품한 작품은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하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콘셉트로 삼아 같은 듯 다른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의 3개 전공을 상징하는 전공 학생들의 꿈을 신한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상화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한대학교의 상징색인 블루와 그린을 오브제로 제작되어 주목을 끌었다.

디자인학부는 전시 기간 중 신한대학교가 발행하는 '신한 특목' 책자를 홍보 부스에 비치해 전시를 관람하는 고교생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디자인 업체 관계자들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구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신한대 디자인학부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은 학교의 위치와 학과정보를 요구했으며 전공 학생들이 수작업으

로 제작한 전시물 모듈을 따로 판매하는지 물어 보거나 '신한 특독'을 놓기 위해 만든 간이 선반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다. 디자인학부 관계자는 "이번 페어 참가는 신한대와 디자인학부의 저력이 알려진 계기가 되었으며 작품전시를 통해 신한대학교와 디자인학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홍보 효과가 더 컸다"고 말했다.

경향 하우징페어는 1986년 경향신문사 주최로 처음 열린 이후 우리나라 건축, 건설 산업 및 참가업체들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국내 최대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시회로 정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7대 브랜드 전시회이다. 매년 참가업체의 70~80%가 신제품과 신기술을 출시하는 경향 하우징페어는 업계 관계자와 건축 및 디자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할 'Must-See 전시회'로 인식되고 있다. 경향 하우징페어를 잘 알고 있는 참가업체 브랜드의 인지도가 90%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등 소프트웨어 관련 아이디어와 제품 전시가 주를 이루었다.

경향하우징페어는 2013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최대 건축전시회 'INDO BUILDTECH', 유라시아 신흥 시장인 터키 최대 건축전시회 'TURKEY BUILD' 등 해외 우수 건축박람회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신한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작품을 출품할 경우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전주혜 학생 기자〉



SHINHAN University

New start!

‘ ’

신한대학의 미래를 짊어질 새내기 ‘신한인’의 모습은 열정과 용기로 가득 찼다. 2016학년도 신입생들은 학교가 마련한 오리엔테이션과 동기유발학기제를 통해 자신들이 ‘신한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대학으로 성장하는 신한대학교가 최고의 대학이 되는데 필요한 진취성과 청춘의 열기를 발산했다.

강원도 홍천서 1,500명 참가 17일부터 이틀 동안
캠퍼스생활 안내,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도 제공



꿈에 그리던 대학 캠퍼스 생활이 시작됐다.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학인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하나, 신입생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 마음이 설렜다. 신한대학교는 2016학년도 입학생 새내기 ‘신한인(Shinhan인)’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2월 17일부터 1박2일 동안 강원도 홍천군 홍천대명비발디파크에서 가졌고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대학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사 및 캠퍼스 교육을 실시했다.

신한대학교는 이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목표와 비전을 소개하고 캠퍼스 생활의 적응 방법, 특강과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발견의 기회를 신입생에게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학교 측은 ‘신한인’이 가야 할 길, ‘신한인’이 갖춰야 할 자세 등을 학교 특성 소개와 함께 제공했다. 특히 기독교 이념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방안을 소개해 ‘신한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주었다.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 첫 날 수강신청 및 성적관리 안내, 학생지원팀의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 안내, 학생상담센터의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안내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학생자치단체, 홍보대사의 활동 내용을 소개 받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받았다. 또한 가수인 주영훈 공연예술학과 교수의 특강, 박경서, 윤하제인 교수를 비롯한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의 노래 공연, 신한대학교가 주최한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수상 팀과 비보이 팀의 공연 등 장기자랑도 펼쳤다. 둘째 날에는 소속 학과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참석인원은 사회과학대학 등 7개 대학 21개 학과 신입생 1300여 명과 부총장, 기획처장 등 처장단, 학생대의원을 포함한 운영요원, 학과별 진행요원, 학생간부 등 1500여 명이었다.

“Shinhan+國+人”

!



신한대학교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16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의정부 캠퍼스에서 동기유발학기를 실시했다. 동기유발학기란 신입생들이 입학 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갖고 전공기초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4년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된 특별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이다. 신입생은 동기유발학기제를 통해 신입생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한 신입생들은 동기유발학기제를 통해 신한국인“Shinhan+國+人”으로 나아가는 비상의 의지를 다졌다.

신입생들은 동기유발학기제 기간 중 ‘나는 신한인이다’를 주제로 이종찬 한민족평화통일연구원장(전 국정원장),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변도윤 전 여성부장관 등 초청인사의 명사특강을 들었다. 또 전공학습 분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과별 전공 안내 프로그램과 진로분야와 미래직장에 대한 안내도 받았다. 3월 4일 마지막날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의정부 캠퍼스 도봉관 체육관에서 학과(부)별 CCM경연대회를 열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참가상을 주었다.

신입생들은 동기유발학기를 통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자아성찰과 성공적인 취업설계까지 가능하도록 도움을 받았고 동기유발학기교육프로그램 참여로 교양필수 1학점을 취득했다.

신입생들은 자아성찰 프로그램의 경우 자신의 참 모습 찾기, 삶의 목적 찾기, 미래 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신입생들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취동기의 욕구가 강화되도록 도움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최소 향후 10년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으며 목표 달성의 방법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교무처 관계자는 “동기유발학기는 신한대학의 핵심 교육전략 가운데 하나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동기유발학기는 신한대학이 추구하는 현장교육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자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동기유발학기의 이점을 강조했다.

〈변진영 기자〉

‘PASSION 16

“가가,
가가.”

조국 근대화를 이끈 민족지도자·종교인·의료인의 열정을 소개한 『PASSION 열정, 16인의 기독교인』 출판기념회가 2월 25일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베엘관에서 열렸다. 전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성중 장로가 집필한 이 책은 기독교 전래 13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책이다. 책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은 일제강점기, 해방과 건국, 6·25전쟁, 혁명, 민주화 등 국난극복의 시기를 겪으며 근대화에 이어 현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민족지도자들, 민족정신의 핵심에 기독교를 심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저항정신으로 민족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육신을 버린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우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했던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다. 이들은 3·1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를 이끈 주역들이자 육신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일제에 항거한 저항인이었으며 병들고 가난

한자들을 사랑으로 품은 희생자들이다.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을 전한 주역인 윤동주, 유관순,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전덕기 목사, 주기철 목사 외의 총 16명의 역사적인 행보를 담은 이 책은 이 땅에서 기독교의 열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천에 옮긴 선각자들의 이야기다. 저자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뜻을 품어 2·8독립선언, 3·1만세운동, 상해 임시정부의 주역이 되는 등 한국역사에서 근대화와 자주화, 독립화까지 기독교를 빼면 무엇 하나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 역사는 기독교의, 기독교인에 의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자는 또 “이들의 희생정신으로 동방의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분단과 전쟁의 참화를 딛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선교에서 세계 1위의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했으며, “기독교 역사가 바로서야 한국 역사가 바로서고 한국 역사가 바로서야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PASSION

열정 16인의 기독교인

“ 가
가 ,
가
가 ”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선교사가 조선 땅에 상륙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날은 131년 전, 1885년 4월 5일이었다. 그날은 예수님이 로마군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한 날이었다. 그리고 그 날은 중세기적 암흑에서 헤매던 조선민족이 근대화를 향한 또 다른 '부활'의 나래를 펴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기독교 복음이 스며들면서 백성의 의식은 깨어나기 시작했고,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기까지 한 세기 반이 넘는 세월 동안 민족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천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나라와 민족을 근대화로 이끌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독교 정신을 교육이념으로 설립된 신한대학교가 기독교 전래 13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증거하기 위해 조국의 근대화를 이끈 민족지도자들의 열정을 조명하기 위해 'PASSION 열정, 16인의 기독교인'을 펴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펴내는 기독교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출판물이다. 저자 강성종 장로(전 신흥학원 이사장·17,18대 국회의원)를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신한대학교에서 이 책을 출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한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이념으로 설립되어 성장한 학교입니다. 학교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소통을 끊임없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왜 'passion'입니까?

열정, 욕망이라는 뜻을 가진 passion에 정관사 The를 붙이면 예수님의 고난이 됩니다. 또 접두사 com을 붙이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矜恤)을 뜻하는 compassion이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시작되어서 Passion을 사용하였습니다.

- 지난 130년 우리의 역사는 passion과 compassion의 역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지난 세월은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친 고난의 시기였고, 새로운 사회질서와 문화를 일군 시기였습니다. 새 나라를 만들어보겠다는 희망과 열정이 강물처럼 흘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외세에 의해 국토가 두 동강 나고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민족 passion의 역사였습니다.

- 기독교는 지난 13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류 역사를 예수 이전과 이후로 나눠 BC와 AD로 표기하는 것만큼이나 한국의 역사도 '기독교 이전'과 '기독교 이후'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BC 한국'의 구습과 가치는 'AD 한국'에서 차례차례 깨지고 무너지고 새로 쓰여졌습니다. 반상의 구분, 남녀의 차별이 폐지되고 축첩의 관습도 사라졌습니다. 신학문을 가

르치는 학교가 세워지고 한글전용이 실행되면서 문맹률이 크게 떨어졌고, 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생겨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또 자유와 평등, 민주와 인권이란 개념은 노동자, 농민, 여성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바탕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 130년이라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인물을 선정하실 때 어떤 점에 주목하셨나요?

열정과 희생으로 이 땅에 기독교의 이념을 뿌리내리고자 했던 선각자들의 희생적인 삶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념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민족지도자들을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다 같은 하나님의 자식들인 불행한 백성들을 내 몸 같이 아끼고 돌보며 자신의 것을 모두 내주는 희생정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이 암흑의 시대를 지날 때 교육과 의료 활동으로 새로운 문명을 알리고 기업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한 사람들도 중요했습니다. 이 조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분들은 일제강점기, 해방과 건국, 6·25전쟁, 혁명, 민주화 등 국난극복의 시기를 겪으며 근대화에 이어 현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민족자들이고, 민족정신의 핵심에 기독교를 심은 사람들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우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했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 passion의 과정에서 기독교를 믿는 선각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식인들은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기독교 사상을 통



해 민도(民度)를 높이고 기독교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2.8 독립선언과 3.1 만세운동, 상해 임시정부를 이끈 주역 대부분 역시 기독교인이었으며, 신사참배를 마지막까지 거부한 세력도 기독교였습니다. 일제의 천황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손양원 목사 같은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목숨으로 항거했습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민족의 자존심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근대화와 자주화, 독립화까지 기독교를 빼면 무엇 하나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독교인에 의한 Passion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인물들은 정치적 저항을 통해 독립을 지향했던 민족지도자와 교회를 중심으로 외척전 도산 안창호, 일제에 시달리던 이 땅을 '땅 끝'으로 여겨 국내에서 저항했던 월남 이상재,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국내 독립운동의 산실역할을 했던 전덕기 목사 등이 그들입니다. 특히 김구가 해방정국에서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를 기독교로 삼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 시인 윤동주가 기독교인으로 치열한 삶을 살다 27살의 나이로 요절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윤동주는 시인이자 구도자였으며, 또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뇌를 시로 형상화했고 일본 유학시절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교토형무소에서 생체실험으로 순교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과 육체로 실천했던 작가였습니다. 130년 전에는 동방의

한 약소국이었고, 70년 전에는 분단과 전쟁의 참화로 신음하던 후진국이었는데, 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선각자들이 흘린 땀과 피를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역사(役使)가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절대 인원으로 보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인구비율로 치면 1위의 선교사 파송국입니다. 현재 세계 170개국에 '한국의 언더우드'가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눈을 돌리면 남북 간, 동서 간, 계층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광복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기독교 또한 공동체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물질과 성장에 사로잡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D 한국'의 역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근대사의 핵심 키워드라 할 패션과 컴패션에 대해 기본 이해가 없는 젊은이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닐진데, 이런 현실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가 바로서야 한국 역사가 바로서고 한국 역사가 바로서야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130년이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100년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기독교인들의 희생정신과 열정을 되살려 남북이 통일된 기독교 국가로 탄생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1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은영 기자>

PASSION

16

열정은 영어로 패션(passion)이다. passion에는 열정, 욕망 외에 고난이란 뜻도 있다. 열정이 고난이 되어, 역경의 길을 향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된다. 진정한 긍휼은 열정과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고난 속에서 피어난 16인을 만나보자.



• 윤동주

8.15광복 직후 경성에서 27살의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일제에 항거하다 아름다운 시들을 남기고 짧은 생애를 생체실험 마루타가 되는 비극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민족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복을 믿었던 구도자였다.

• 유관순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갓은 고문을 견디며 독립만세를 외치고 순국한 '한국의 잔다르크' 유관순은 1910년대 한국 기독교의 상징이다. 젊음을 고국의 미래를 위해 불태웠던 유관순 정신은 암울한 현실을 사는 청년들에게 도전정신을 일깨웠다.

• 백범 김구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대한독립이 가능하리라는 확신으로 대한독립을 외쳤다. 임시정부 주석으로 독립운동을 지휘했다. 혼란과갈등의 해방공간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했던 이승만과는 달리 남북협상으로 통일정부를 꿈꾼 민족운동의 큰 산맥이었다.

• 도산 안창호

1932년 윤봉길과 도시락폭탄사건에 함께하고 신민회 창설, 흥사단 운동에 몸을 던졌던 안창호는 하나님의 역사로 민족해방의 험난한 길을 걸었던 선각자였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에 따라 국권과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지도자였다.

• 월남 이상재

53세 때 기독교에 입교한 그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교육자, 독립운동가, 언론인이었다. 민족사랑 외의 것과 타협하지 않으며 일제에 시달리던 이 땅을 '땅 끝'으로 여겨 조국을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저항했다.

• 진덕기 목사

일제의 침략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라는 고종의 밀명을 받아 파견된 헤이그 밀사 중 한명이다. 그가 이끄는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헤이그 밀사의 계획을 구상했다. 신민회를 조직 했으며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투옥되어 얻은 고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 주기철 목사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순교자인 그는 1944년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못 위를 걷는등 참혹한 고문을 당해 생을 마감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승리했다.

• 손양원 목사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품었고, 전염병에 대한 차별 없이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한센병의 아버지다.

• 맹의순

적군도 인정한 포로수용소의 순교자다. 수용소 안에 광야교회를 개척하고 수용소에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며 석방마저 거부하고 순교했다.

• 장기려 박사

의사를 한 번도 못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받치겠다는 기도와 함께 의사를 시작했다. 환자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병원을 열어 치료비를 받지 않고 진료했고 한국의의료보험을 만들었다.

•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그는 하늘의 뜻을 실현한 기업가다.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주식 모두를 사회에 환원했고, 조국에 있지 않아도 사업성공이라는 자신만의 민족사랑 방식을 실천했다.

• 김용기 장로

3·1만세운동에 선봉에도 섰던 그는 성경에나오는 가나안을 한국 광주 땅에서 실현시켰다. 36년을 일제치하에 살았지만 신사참배나창씨개명은 물론 국민의례도 하지 않았다.

• 송암 박두성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점자 훈맹

정음(訓育正音)을 만들었다. 성서를 점자로 번역해 시각장애 인도 구원에 이르게 했다.

• 유진벨 4대(代)

4대(代)에 걸쳐 조선인 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지독한 한국사랑으로 전란에서 도망가기 바빴던 한국인 대신 총을 들고 국토를 지키고 죽어서도 이민족을 위해이 땅에 묻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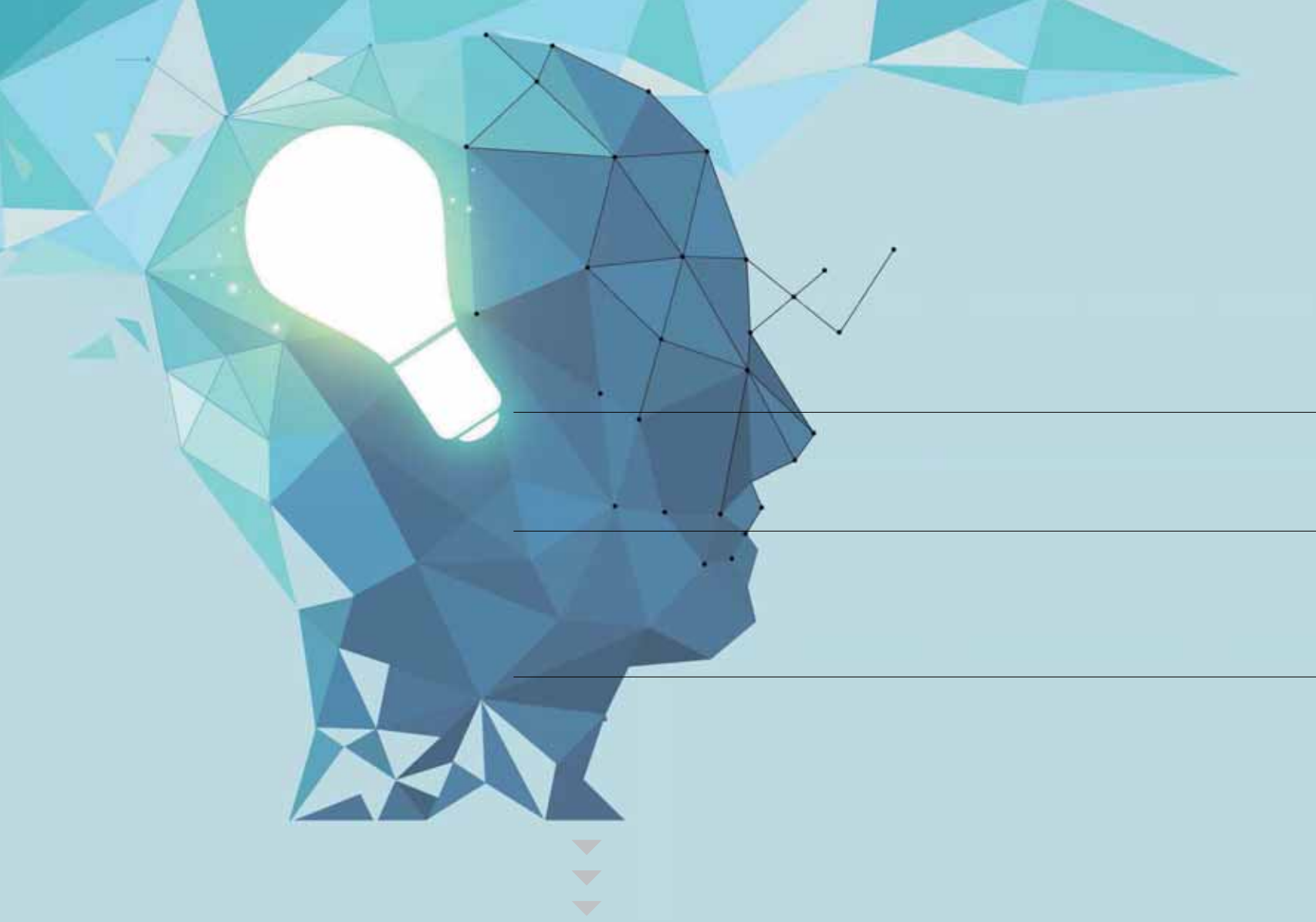
• 김종양 선교사

1985년 첫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으로 가난하고 작은 나라 스와질랜드의 국적까지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받았던 사랑을다시금 널리 퍼트린 것이다.

• 강신경 목사

안홍보육원에서 전쟁고아와 미망인, 혼혈아를 돌봤고 60년 동안이나 함께 했다. 디프테리아라는 위험한 병마 앞에서 자신의 4살배기 아들이 아닌 고아 형제에게 마지막 1알의 약을 주었다. 보육원, 요양원, 교회와 직업학교에서 대학까지 설립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다. 그가 설립한 신홍보건전문학교가 지금의 신한대학의 발동음이 되었다.

<박은영 기자>



Shinhan University Vision

Talent Identity

New Start

4S Power

신한대학교 인재상

-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 양성
- 사랑과 봉사의 사명인
- 지성과 창의의 실용인
- 소통과 공감의 세계인
- 도전과 발전의 학습인

Start New-versity

- S _ ShinHan國人을 양성하는 New-versity
- T _ 재능(Talent)을 함양하는 New-versity
- A _ 행정(Administration)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New-versity
- R _ 지역(Region)발전에 기여하는 New-versity
- T _ 내일(Tomorrow)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New-versity

신한대학교의 4S 파워

- **Spirit** : 기독교 정신의 섬김을 통한 영성교육
- **Service** :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나눔교육
- **Synergy** : 통합과 융합의 새로운 창조교육
- **Specialization** : 특성화와 차별화된 전문교육



제1회 K-POP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 MC - 공연예술대학 교수 주영훈, OBS 아나운서 신미정

주영훈교수 곡으로 디지털싱글앨범 발매 특전(대상)

K-POP 스타 축하공연

일정

- 지원자격 : 남녀노소 · 재외국민
- 신청기간 : 4월 1일(금) ~ 4월 28일(목)
- 참가비 : 2만원 (국민은행 804802-00-054250
예금주 : 준비위원회)
- *4월 28일(목)까지 입금완료 안 될 경우 참가신청 자동 취소
- 예선(국내) : 4월 29일(금) ~ 4월 30일(토) 2일간 신한대 원형극장
- 예선(중국) : 4월 7일(목) 천진 / 4월 9일(토) 연변
- 본선 : 5월 7일(토) 신한대 원형극장
- 결선 : 5월 13일(금) 19:00 ~ 22:00 의정부 예술의전당 특설무대
- 문의 : 뮤직페스티벌 준비위원회 031)870-3355/3780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shinhan.ac.kr) 참조. 참가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시상

- 대상 : 신한대학교 총장상 300만원(디지털싱글 발매 특전)
- 금상 : 의정부시장상 250만원
- 은상 : 신한류뮤직페스티벌 조직위원장상 200만원
- 동상 : OBS경인TV 대표이사상 150만원
- 특별상 : 신한류뮤직페스티벌 준비위원장상 100만원

경품

- 결선 공연 관람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YAMAHA(아마하)에서 제공하는 푸짐한 경품(기타 및 헤드폰)을 드립니다.

- 주최 : 신한대학교 의정부시 • 주관 : 신한류 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주관방송사 : OBS 중국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 후원 : (대)의정부예술의전당 신한대학교총동문회 天津外國語大學 연변대학 국제대
- 협찬 : 신한대학교 YAMAHA LG유플러스 신한대학교장신호씨유리새마을금회 신한대학교 JINHAK ULINE 의정부99인합회 신한대학교 PARIS MAGNETTE



신한대학교는 오는 5월 13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특설 무대에서 제 2회 '신한류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은 K-POP 장르의 우수한 창작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한대학교와 의정부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회로서, 지난 해 처음으로 창설된 대회이다. 국내 지원자 중심이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제 2회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은 참가 기회를 더 많은 이들에게 확장시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중국예선과 한국 예선을 함께 거친 후에 수상자를 선별한다. 특히 이번 대회 개최 소식은 신한류 페스티벌이 단지 일회성 축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k-pop을 대표하는 페스티벌로서 그 명성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대상 수상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한대학교 교수이자 최고의 작곡가인 주영훈교수의 곡을 받아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하기 때문에 대회 개최 이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혜미 기자〉



2 K-pop

300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3일간 중국 천진외대와 연변대에서 열렸던 제 2회 'K-pop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 예선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그 결과 300여 팀의 지원자 중 각 대학 당 오직 2팀만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신한대학교는 결선 팀들에게 왕복항공권과 숙박, 식사, 차량 등을 제공하였다.

천진외대에서는 임재범의 너를 위해를 부른 '채청림'과 태양의 눈코입을 부른 '구 소'가 결선에 진출했으며, 연변대에서는 상사를 부른 '오애령'과 지우개를 부른 '김지연'이 결선에 최종 진출하였다.

이번 중국예선은 특히나 작년에 비해 중국인 지원자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먼저 제 2회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 중국대학 예선을 통해 문화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유학생 유치 등의 국제적인 교류에도 높은 성과를 보이는 행사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중국에서 신한대학교와 의정부 지역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키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연변대학은 국내 대학 중 신한대학교가 81번째 MOU를 체결해 교류기간이 상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선전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이번 예선전은 지난 4월 11일 중국 길림신문, 연변일보에 차례로 보도되었으며, 4월 12일에는 연변라디오 텔레비전에 방송되면서 중국 언론도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의 귀추에 대해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는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이 더 이상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머지않아 곧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거듭날 것임을 뜻하기도 한다. 앞으로도 신한대학교는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이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대학에 적극적으로 홍보와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많은 관공서, 대기업 등 후원업체를 방문하며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 2회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의 최종 우승팀이 결정되는 결선 무대는 오는 5월 13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며, 작년보다 한층 더 향상된 실력의 소유자들이 속속히 등장하자 아직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권혜미 기자>

‘CCM 경연대회’ 화려한 퍼포먼스, 열띤 응원의 현장

2016학년도 동기유발학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CCM 경연대회가 3월 4일 열렸다. CCM 경연 대회에서는 재학생과 신입생들의 협동심과 각 학과의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개 학과가 참여하여 학과별로 모든 학생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각 학과가 준비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학내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학과마다 열띤 응원을 펼쳤으며, 다른 학과의 노래가 끝날 때 마다 큰 호응을 해주었다. 신한대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신입생들이 ‘신한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동기유발학기제를 시작했다. 동기유발학기제를 통해 신입생들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가진데 이어 전공기초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4년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신입생들은 또 스스로 목표를 정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동기유발학기제로 인해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조금 더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회 연습은 신입생들 간의 만남의 장이 되었으며, 신입생들 간의 소통과 배려를 통해 바람직한 교우 관계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CCM 경연 대회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서로 도와주며 협동심을 키울 수 있게 했으며, 선후배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했다. 경연 대회까지 많은 연습을 하고 퍼포먼스를 통한 창의적인 사고까지 넓힐 수 있었던 것도 수확이었다. CCM 경연대회는 특히 기독교 정신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각 학과마다 노래에 담긴 기독교적 이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는 '더 히든' 시작 축하공연에 이어 학과(부) 경연 1부, '더 히든' 신한 열정 UP 공연, 학과(부) 경연 2부, 공연예술학과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은 더 히든, 박주원교수, 김은혜교수, 이현숙교수, 김진호 목사, 소프라노 최윤정이며 준비성(15점), 협동성(15점), 호응도(15점), 영성(15점), 음악성(40점)을 채점기준으로 했다. 경연 결과 치위생학과가 명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금상은 유아교육과, 은상은 간호학과, 동상은 국제어학과, 마지막으로 인기상은 식품조리과학부가 차지했다.

<김민지 기자>





「 , 」

고양시가 올해로 시 승격 24주년을 맞았다.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로 이루어진 고양시에 지금처럼 다양한 시설이 갖춰지기까지는 수많은 변화와 노력들이 있었다. 우리는 현 고양시장인 최성 시장님께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1. 어떤 시장이 되고 싶으셨나요? 시장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시장이 되고자 마음먹었을 당시 많은 동료와 정치권의 선배들이 의아해하셨는데, 저는 아랑 곳하지 않고 시장이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새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수와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살린다면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재선 시장으로 이제 6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시장이 되고자 마음먹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해보지 못한 것,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이 마음으로 꼽는 최고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굵직한 성과를 많이 내는 시장도 되고 싶지만, 그보다 더 목표로 삼는 것은 시민들이 가족처럼 편히 생각하고 늘 미더워하는 시장입니다.

2. '울보시장'이란 독특한 별명을 갖고 계시네요. 같은 이름의 책도 내셨고요. 시장님 평소의 철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요?(웃음) 울보시장 책 서문을 '눈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지었는데, 이게 제 평소 철학을 잘 나타내는 문구라고 할 수 있어요.

18대 총선에 떨어지고 2년간 백수로, 아내의 냉면집을 돕기도 하면서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권위는 스스로 그 권력을 등진 채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생긴다는 것, 그리고 높

은 의자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장 나은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시장이 되면서 저는 저다운 모습을 되찾고 시민을 위해 평평 울고 다녔어요. 제 눈물과 시민들의 눈물이 만난 것이죠.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국정 경험과 학문적 지식들이 민생 현장에서 종종 무용지물이 될 때, 해답은 함께 웃고 우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맨날 울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웃음) 천성적으로 웃음이 많고요, 살아오면서 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평가 또한 '한결 같이 웃고 있다'는 것일 정도로.

3. 국회의원과의 시장, 어느 것이 더 좋으세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학우들도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저는 항상 "시장인 10배는 더 바쁘고 힘들지만 보람도 10배 크다"라고 대답하는데, 보통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라는 건 정치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묶을 수 있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답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적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정부를 견제하고, 동시에 국민을 위한 법 제정에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간혹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야 할 때도 있고요. 특히 다소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만나는 사람을 선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장은 자신의 취향과는 무관하게 여러 시민을 대해



야 하고, 때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민원인과 숙명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은 시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에 가면 저는 공연보다도 시민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휠체어를 탄 노부부라든지, 손을 꼭잡은 중년의 부부, 그리고 데이트 중인 젊은이들 등등. 특히 꽃박람회 같은 전국적 행사에서 꽃을 바라보며 행복에 취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낮에 보았던 시민들의 작은 행복을 꼭 지켜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깨닫는답니다. 시민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4. 시장님의 젊은 시절은 어떠셨나요?

저는 늘 분주했었어요. 대학시절은 물론 수험생 때부터 지금까지 편히 쉬어본 날이 없었어요.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고, 저의 길을 달려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참 재미 없는 사람이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웃음) 그러나 학창시절 다른 뛰어난 친구들에 비하면 더없이 평범했던 제가, 이후 큰 좌절 없이 제 능력 이상의 성과를 내고 평가받은 것을 생각하면 젊은 시절 그 치열했던 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볼 때가 있습니다.

5. 대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저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꼭 시간을 내어 만나는 편입니다. 교육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언제나 제 진로에 대해 세심하게 조언해주는 이가 없어 늘 아쉬워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높은 꿈'보다는 자신의 끼와 열정에 걸맞은 '정확한 꿈'을 설정하라는 말을 자주 해요. 신한대 학생 여러분께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자신에게 꼭 맞는 꿈이 뭔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갖고 있는 꿈에 대한 막연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 꿈은 이미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 있을 거예요.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절망 속에는 늘 희망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분은 메도지를 꺼내 한쪽에는 절망적인 요소들을 적고 다른 한쪽에는 희망적인 요소를 적곤 하셨어요. 그리고는 절망보다 희망의 요소에 밑줄을 긋고 다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진하며 자신의 절망을 이겨내신 거죠. 꿈을 찾아가다보면 여러분 모두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말씀대로 늘 그 속에는 희망이 숨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김민지 기자〉

“ , 가 ”

‘ , ’ .

어떠한 분야든 모든 학문에 있어 오랜 실무 경험만큼 깊은 배움을 얻게 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언젠가 사회로 진출하게 될 학생들은 실제 사회에서 다뤄지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신한대학교 김태희 교수는 오랜 실무 경험에서 오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공학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열정 또한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Q. 교수님의 간단한 이력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으며 기계설비의 Modeling 및 Estimation 분야에서 미국 Columbia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는 삼성SDS에서 제조분야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었고, 주로 플랜트 설비에 대한 이상상태 진단시스템 및 설비관리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후 정비 분야 컨설팅 전문 회사를 설립하여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Q. 신한대학교에 오시게 된 특별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 교육이라는 것은 배우고 실행해왔던 지식을 발전·재창조시키고, 다시 사회에 환원시켜 보다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저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찾던 중 우연히 우리 대학에서 그 기회가 찾아 왔고, 저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교 자동차학과에 오려고 했던 이유는 제 학문적 지식과 많이 일치하기 때문이며,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식 및 기술을 배양시켜서 사회에 진출시키기를 염원했기 때문입니다.

Q. 신한대학교에 오시기 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나태해지던 제 자신이 훨씬 부지런해진 것입니다. 컨설팅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일단 프로젝트가 시작

되면 제약 요인이 많아 그 업무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게 되어 자칫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제약 요인이 훨씬 적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는 일들을 구상하고 일들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의 틀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점들이 있다면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마음관리가 필요하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마음관리가 필요한데, 그 목표가 다를 것 같습니다. 대상이 다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에서는 실제 업무 실행을 통한다는 것이고, 대학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학문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학생들의 커리어 준비를 시키는 것이겠지요.

Q. 현재 선택하신 분야에 종사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 기업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일들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들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들을 만들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 제조 기업은 상당히 관료화되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구개발비를 많이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기 어렵고 참여하려면 대부분 대학교와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제약 사항이 제가 대학교에 온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10여 년 동안 컨설팅사업 여건이 점점 더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런 환경이 계속된다면 소프트



웨어 및 컨설팅 생태환경이 상당히 위축되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융합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Q. 자동차공학과와의 비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지금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몇 가지 특징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규약에 의해 전 세계 국가가 배출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급격히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새로운 센서들과 함께 소프트웨어들이 적용되고 있고, 자율주행차의 핵심 요소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새롭게 개발되는 센서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에서 전기전자 및 소프트웨어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변화추세에 맞추어 우리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이런 분야의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교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고 정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능률도 높고 앞으로의 삶의 질도 높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

기 위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지만 학생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교수 뿐 아니라 과 교수들에게 물어보고 선배배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본인의 개성과 맞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잘 못 정하지 않을까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지 않으면 바꾸면 되고, 우선 정해서 노력해볼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야를 한 가지만 정하지 말고 두 가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분야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행하기 어려울 때가 꼭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습득입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공부에 두고 7:3법칙을 적용하여 70%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30%에 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데 쓰면 좋겠습니다. 4년이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면서 학생들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공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뿐만이 아닌,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까지도 엿볼 수 있는 답변이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실무 중심적이고 학생들을 위한 마음이 우선이 되는 김태희 교수만의 특별한 강의를 기대해 본다.

〈권혜미 기자〉



Make hay
while the sun is
shining



놓치지 말자! 교내에서 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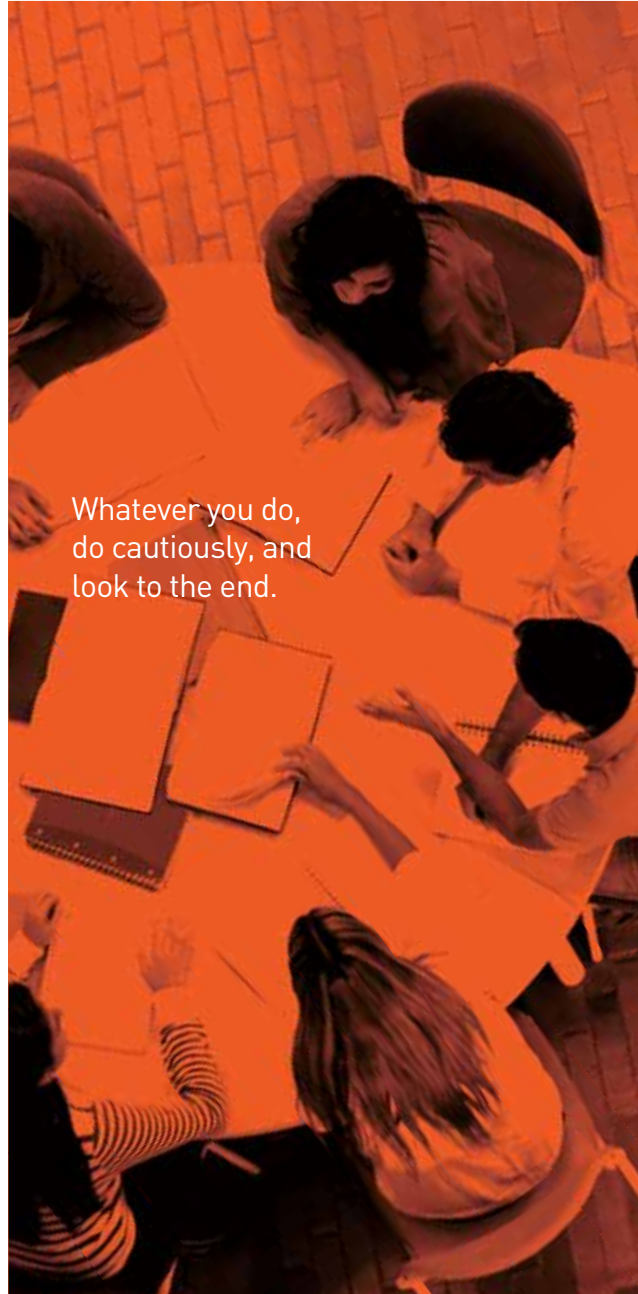
CLEP My Buddy

신한대학교에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책임지는 특별한 기구가 존재한다. 바로 국제어학센터이다.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국제어학센터는 교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한 두 수강할 수 있는 어학특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정기적인 언어능력평가는 물론, 외국어교육 장학프로그램 및 무료 어학특강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국제어학센터에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익 스피킹 강좌나 1:1 영어프로그램, 미국 카투사 강사들과 함께하는 영어 회화 프로그램, 4개 언어 프로그램, 'My Buddy' 등등, 재학생 외에도 유학생이나 미군과 교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까? 먼저 재학생을 위한 기본 토익 프로그램은

YBM이 위탁하였으며 1, 2학기 각각 3~6월, 9~12월 까지 확장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단기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내 모의 토익과 스피킹 시험은 4월 4일 제1 캠퍼스 인수관 강의실에서 10시~12시 30분까지, 제2캠퍼스에서 본관 1층 1030호와 사론관 2층 2080호에서 각각 4월 5일 2~7시, 5월 4일 2~5시까지 진행된다. 외국인 교수로부터 1대 1로 직접 영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3월 14일 월요일부터 시작해 6월 10일 금요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수업명은 'English Clinic'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프리토킹, 이력서, 자기소개 등등 집중과외를 받는다. 1캠퍼스에서는 에벤에셀과 1층





English Clinic 사무실에서, 2캠퍼스에서는 본관 1층 교강사 대기실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앞서 언급했다시피 토익 강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어권문화 체험 및 회화 학습 기회가 제공되는 CLEP (Culture with Language Exchange Program between Shinhan University and 2ID)은 2013년 9월부터 매 학기 10주씩 수업하였으며, 미군 장교와 카투스 강사들이 자원해 현재 6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제 2캠퍼스 본관 강의실에서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본교 재학생은 물론이거니와, 교수 및 교직원 모두가 지원이 가능하니 해외 문화를 접하고 싶거나 외국 문화 체험을 희망한다면 한 번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수강 자격은 영어 회화 및 영미권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고, 서류 전형 및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다. 1캠퍼스에서만 특별히 시행되는 '4개 언어프로그램'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강의 이름 대로 4개 언어를 강좌하며 영어 수업은 전문 강사가,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는 한국어 과정 어학연수생 및 교환학생이 직접 진행한다. 주 1회이며 수업 시간은 월요일 오후 6~9시이다. 수업에 힘 쓴 학생들을 위해 다과도 제공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1년 4학기 운영되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과 'My Buddy'가 있다. 특히 'My Buddy'는 외국인 어학생과 일반 교내 재학생들이 우정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연수생이 한국 친구와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본교 학생들이 글로벌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학생들의 국제화 지수를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된다.

2캠퍼스에서 특별히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주한 미군 대상으로 한국어·역사·문화 강좌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이다. 2013년부터 시작해 학기 중 매주 화·수·목에 수업하고 있으며 현재 4,500명이 수료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한 미군 장병들에게 최적의 조건에서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신한대학교가 지역을 선도하는 대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한 미군 간의 상호교류협력 과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에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장병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 적응성 향상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강의 내용은 한국어, 한미동맹, 붓글씨쓰기, 태권도 등 다양하며 그 중 국제어학과 학생들이 제공한 K-pop Class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외국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영어 및 중국어 강좌로 이루어져있다. 연 40주 동안 1캠퍼스에서는 매주 월요일 6시부터 9시까지, 2캠퍼스에서는 매주 화요일 5시부터 8시까지 수업한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신한대학교 국제어학센터는 우리가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재학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교수, 교직원, 유학생들까지 포괄하는 국제어학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목하자. 전보다 향상된 외국어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국제어학센터는 제 1캠퍼스 공학관 뒤 국제어학센터 건물 2층, 제 2캠퍼스 본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 031-870-3165)

<홍예지 기자>



21C는 **SHIN HAN** **SUPER-VERSITY** 시대



Super **Tec** _ 기술중심 교육의 신한대

Super **Edu** _ 교양인 양성의 신한대

Super **Persona** _ 인성중심 교육의 신한대

Super **Serve** _ 봉사정신 교육의 신한대

<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아련하고도 친숙한 구절은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인,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序詩)’에 나오는 문구이다. 문학에 깊은 조예가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의 시는 일제강점기 이후 몇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치 ‘국민적인’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는 그의 시는 어떤 정신을 바탕으로 쓰였을까? 지금부터 그 빛나는 정신에 대해 되짚어보자.

시인 윤동주는 기독교 장로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는 1908년 만주 북간도에 세워졌던 민족교육기관인 명동학교의 교원이었고 조부는 부유한 농민인 동시에 기독교 장로였다. 가족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빠지는 일이 없던 윤동주는 집에서 멀지 않은 교회의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보며 신앙심을 고취시켜갔다. 그의 외사촌과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얼마



나 교회 생활에 충실했는지 알 수 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쓸 꽃종이를 만드느라 밤을 새고 어른이 되어서는 연희전문대학을 다니며 여름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정신은 후에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손에 탄생하는 <서시>의 근간이 되었다.

윤동주의 시가 기독교적인 시로도 호평을 받는 이유는 시와 신앙을 잘 융합했기 때문이다. <서시>는 물론 그가 처음으로 쓴 기독교 관련 시인 <이적>이 그렇다. 은은하면서도 강렬하게 녹아있는

상징과 문구들은 그가 나라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었음을, 또한 끝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절망의 시기임에도 끝까지 신앙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자 했던 그의 정신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우리와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윤동주의 어린 시절이 녹아있는 용정중학교 터에 시를 새긴 비석과 윤동주 기념관을 건립해 그

친필원고 '봄'과 '참회록'



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되새겼다.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상처를 준 일본 또한 훗날 그를 ‘기독교 시인’이라 평하며 그의 시인 <서시>를 그들의 교과서에 실기도 했다.

<서시> 이외에도 <태초의 아침>, <초 한 대>, <십자가> 등등 그의 시에는 기독교 정신이 육화되어 있으며 종교적 사상이 문학적으로 잘 녹아내려져 있다. 그의 시가 단순히 아름다운 시로 그치는 것이 아닌 기독교 문학적인 경향을 가진 시로서 호평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두고두고 감탄하고 존경할 정도로 숭고했던 그의 정신은 과연 그의 시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빛낸 정신이 아닐 수 없다.

<홍예지 기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마음에 새겼을 그 아름다운 시인을 기억해본다.



송실중학시절 (뒷줄 맨 오른쪽)

종로구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

『Book Together』

『Reading 4848』



『Book Together』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김추윤)은 신한인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장서 50만권 확보를 위한 기증 운동인 『Book Together운동』을 시작했다. 장서 기부운동은 “당신의 도서관 증, 신한인의 미래를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창학 42년의 역사를 새로 써서 자타가 공인하는 수도권 명문대학의 도서관으로 발돋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교훈인 <소통과 공감>, <사랑과 봉사>, <지성과 창의>, <도전과 발전>을 고양하고 지성, 영성, 실용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정성어린 뜻이 모아 도서관 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부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도서관 기증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 지역주민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이 아닌 일반도서라면 제한 없이 기증이 가능하다. 자신이 기부할 책을 가지고 중앙도서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책이 많은 경우 도서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된다. 중앙도서관은 “당신의 도서관이 도서관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 했다.

(도서기증담당자 : 031-870-3125, 조우택)

『Reading 4848』

중앙도서관에서는 『Book Together 운동』뿐만 아니라 신한인 『Reading 4848운동』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Reading 4848』은 대학을 다니는 4년, 48개월동안 신한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자는 목표가 담긴 이름이다. 도서관에서는 “48권의 책과 더불어 52권의 책을 더 읽어서 신한인 필독 권장도서 100권을 다 읽는다면, 인생의 성공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서관에서 『Reading 4848 운동』의 기초 자료집인 <신한인 필독권장도서 100선> 책자를 입학 초기 실시하는 동기유발학기에 1인당 1권씩 이미 배부했다. 이 책자 속에는 세계 및 국내의 명작 100권에 대한 저자 약력과 책의 내용이 압축, 요약되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책 말미에는 책을 읽어야 하는 12가지 이유로 동기부여, 건강한 습관, 인생관과 가치관 등을 설명했으며, 더불어 『Reading 4848 운동』의 의미도 알렸다.

<최희원 기자>



“잠자고 있는 책을
꿈꾸는 책으로!”





‘ !’



2016년 새학기를 맞아 신한대학교에 첫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사무소)가 정식 출범했다. 동사무소라는 이름은 동아리연합회가 국가민원센터처럼 동아리에 대한 사소한 민원접수부터 건의사항까지 모두 처리해준다는 뜻이다. 동사무소는 일상 속에서의 작은 행정절차부터 크나큰 문제들까지 모두 도맡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학생자치기구다.

동사무소의 주 업무는 교내 등록된 임시동아리부터 정식 중앙동아리까지 관리·감독 하며 예산 지원, 동아리방 배정 및 대학 동아리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다. 동사무소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과 예산 및 사업금을 관리하는 회계총무가 있으며 그 외 공연,체육,종교,봉사,예술 5개의 분과로 나뉘어 각 분과장 1명씩 5명의 임원단, 총 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올해 신한대학교의 약 8개 내외의 신규 및 새로운 정식동아리들이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의 많은 관심으로 동사무소에 등록을 준비했다. 동사무소는 이에 부응하여 교내 대의원회, 학과대표들과 소통하며 축제 및 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에 동아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내 재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창구도 구비되어 있다. 현재 '신한 동사무소'라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이며, 현재 한 달이 조금 넘는 시점에 1500명이 넘는 재학생들이 구독 중이다. 공식 블로그를 이용하면 중앙동아리와 가등록 동아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여러 공지사항과 행정약식 및 회의록,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는 행정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학생들과 빠른 소통이 가능한 SNS 페이지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있다.

올해로 처음 정식 출범을 한 총 동아리 연합회는 대학생들의 꽃이라고 불리는 동아리, 즉 청춘의 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동아리 연합회 회장 편영민 학생은 “20대 대학생이 아니면 언제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학생여러분들의 대학생꽃밭, 청춘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라며 대학 동아리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최희원 기자〉





“

!”



신한대학교 제 2대 대의원회 '대디'출범

2016년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도, 신한대학교도 또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또 다른 학생 임원들이 선출되었고, 그 가운데 재학생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 과 학생들이 직접 그들을 뽑은 만큼, 그들은 그 누구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의원직에 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신한대학교 제2대 대의원회 '대디'의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Q. 신한대학교 제 2대 대의원회 '대디'의 뜻은 무엇인가요?

- 저희 제 2대 대의원회는 대학생활의 디딤돌의 역할을 다하자는 뜻에서 '대디'라는 준말을 만들어 별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학생활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가 있고, 또 이름 그대로 '대디'라는 이름이 마치 아빠가 된 듯 관심을 가지고 어김없이 도움을 주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심을 낮추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미있는 이름이라고 생각되었기에 대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대의원의 총인원과 직분, 그리고 그 직분별로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 21개 학과/학부에서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된 21명 안엔 상임진과 평대위원이 있습니다. 상임진에는 대의원회 내에서 자치적으로 투표하여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임명 방식으로 선출된 상임대의원 6명이 있으며, 이를 보좌하며 견제하는 평대의원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대의원회 의장은 학생들을 위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 및 견제하며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상임대의원은 예결산, 총무, 서기, 기획, 복지, 홍보 이렇게 6개 팀의 팀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평대의원 13명은 팀에 소속된 팀원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Q. '대위원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대디만의 신념이 있다면?

- 저희 제 2대 대의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은 바로 '소통'을 하자는 것입니다. '소통'을 신념으로 내세우며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학교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신념입니다.

Q. 2016년, 올해 대디가 추구하는 우리학교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 올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첫째도 학생, 둘째도 학생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4년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도기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1캠퍼스뿐만 아니라 2캠퍼스의 복지 향상에도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디'가 있는 2016년 한 해를 학생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도 저희의 또 다른 방향성입니다. 물론 공부만 하다가 시험을 보고, 시험이 끝난 뒤 과제를 하다 또 시험을 치루며 한 학기가 끝나는 것 또한 재미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활동적인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며 '아,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졌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대디'가 추구하는 우리학교의 방향성은 첫째도 학생, 둘째도 학생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Q. 대디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아마도 조금 더 활성화된 SNS에서의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선불리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끝나가기 전에 '장점'이라 할 만한 점들이 많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혹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학생 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아직 어려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의원회라는 직책은 전혀 어려워 할 직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대디는 마치 헤어진 구남친/여친에게 집착하듯이 학생 여러분에게 집착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저희 제 2대 대의원회는 내년에 출범하는 총학생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총학생회의 부재로 인해 총학생회의 역할을 대의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학생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분명

히 할 수 있으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내년 총학생회가 출범하더라도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저희를 믿고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디의 모든 답변에서 진정으로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앞으로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대디'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전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면 대디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대학생활이 한층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권혜미 기자〉



일취월장 공연예술학과의 성장기록 댄스전공 'NEW ONE'의 공연과 연극 '똥날', 창작극 '썸데이즈'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의
공연수준이 높아지면서 교내차원을 넘어
외부의 공연초청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이 신한류 뮤직페스티벌과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수차례의
교내 연극공연과 대학로 연극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학과 설립 2년 만에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공연예술학과 'NEW ONE'의 경기 영어마을 초청공연

공연예술학과 댄스전공 'NEW ONE'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주최한 장학기부행사 콘서트의 초청으로 높은 수준의 댄스실력을 선보여 환호를 받았고, 국내 최초의 비보이 그룹 피플크루의 멤버인 비보이 제리(김근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 재학생으로 구성된 신한대학교 댄스팀은 비보이팀 퓨전엠씨, 여성힙합팀 버터플라이, 전년도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팀 라스트포원, 얼반라이프크루, 중국 아이돌 그룹 투포케이와 함께 참가해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콘서트는 경기영어마을이 진행하는 소외계층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예술인재 육성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행사였다. 신한대 댄스팀은 이날 공연으로서 기부에 참여했고 김정진 경기영어마을총장으로부터 감사장, 댄스행사를 기획한 문병순 댄스전문 지도교수로부터 각각 공로상을 받았다. 수익금 전액은 저소득층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됐다.

문병순 겸임교수는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이 국내 최고의 댄스 팀과 한 무대에서 공연을 펼쳐 기성 댄서들과 대등한 공연을 펼치는 수확을 거뒀다. 학생들이 공연과 장학금 모금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공연예술학과 연극 정규공연 '똥날', 젊은 날의 꿈 잃은 386세대의 아픔을 담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학과장 이범수) 연기전공 학생들이 연극 '똥날'을 무대에 올렸다.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간 의정부 캠퍼스 벨엘관 소극장에서 공연된 한국 현대극의 명작 '똥날'(김명화 작)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인 386세대의 아픔과 현실을 그린 작품이다. 견고한 제도권 사회의 질서 속에서 젊은 날의 꿈을 잃은 채 점점 마모돼가는 이들의 비루한 오늘을 사실적인 시각으로 표현했다. 돌잔치라는 구체적인 배경 속에 단 하루 동안 벌어지는 풍경과 그 속에 감추어진 사건들을 통해 상처받은 현실적 삶과 연극 속에서의 삶을 일치시키려 한다. 연기전공 학생들은 앞선 세대가 겪었던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무대 위에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깊은 이해력과 감정연기로 '세대 간의 대화'를 시도했으며 수준 높은 연기실력을 보여 갈채를 받았다.



공연예술학과 최초의 창작극 '썸데이즈'

지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신한대학교 벨엘관 소극장에서 공연예술학과 연기전공학생들의 창작극 '썸데이즈'가 공연됐다. 이 공연은 15학년 학생들이 지난 한 해의 배움을 정리하며 '똥날'과 함께 <제작실습공연>으로 올려졌다.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라이브 카페 '썸데이즈'에서 들려주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내면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기획, 연출, 음향, 무대구상까지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예술학과 연기전공학생들의 역량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관객에는 2016학년도 수시입학생들도 함께 했다.

신한대학교 김병욱 총장은 '썸데이즈'는 기존의 대본이 아니라 공연예술학과가 만든 대본으로 연기전공 최초의 창작극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연예술학도가 레퍼토리의 선택과 제작의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의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16학년 학생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고 공연예술학과 이범수 학과장은 “<제작실습 공연>에 참여한 모든 학우들이 연기를 향한 나의'발견'을 경험하길 바란다. 오늘과 노력의 있기에 여러분은 거침없이 발전할 것이다.”라며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은영 기자>



우리의 공모전



“동아리는 뭘 가입할까?

무슨 자격증을 딸까?

성적은 어느 정도여야 하지?

으아아!”

요즘 대학생들은 고민이 많다.

학교 다니기도 바쁜데

스펙도 쌓아야 한다니.

그런 신한인을 위해 준비했다.

대외활동에 관심이 많은

새내기부터 졸업을 바라보는

현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해볼 만한

대학 생활의 다이아몬드

‘공모전’을 소개한다.

〈최희원 기자〉

제 5회 부산광역시 대학생 마케팅 기획 공모전

- **주최** : 부산광역시
- **접수기간** : 2016.03.10 ~ 2016.05.10
- **공모분류** : 기획/아이디어/광고/마케팅
- **공모주제** : 지역·가치·나눔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 부산지역 소상공인, 소기업, 마을기업 1곳을 자율적으로 선정, 스토리와 상품 등을 모바일 홈페이지 '모두'를 활용, 콘텐츠 제작화 (템플릿, 불륨 등 제한없음)
 - 진행된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본선은 PR 프리젠테이션 경연대회로 추진, 현장 인터넷 생중계 및 온라인 투표 실시
- **상금** : 대상 200만원, 총상금 1천만원 이하
- **홈페이지** : blog.busan.go.kr/4269
- **문의처** : 051-888-1412



제2회 M.Y. Dream

전공을 job아라!

- **주최** : 경제사회공유가치창출연구원
- **접수기간** : 2016.03.02 ~ 2016.06.03
- **공모분류** : 영상/사진/UCC/SOUND
- **공모주제** : 대학 전공 소개 영상
 - ICSV에서 이미 제작한 전공을 제외한 대학 전공 소개 영상물
 - ※ ICSV 선정 전공리스트 (참가 신청서 內 첨부)에 포함된 전공 영상물 심사 시 가산 점 부가
- **상금** : 대상 300만원, 총상금 1천만원 이하
- **홈페이지** : www.isharevalue.org
- **문의처** : 070-4739-3191



2016 사인프론티어 공모

- **주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 **접수기간** : 2016.04.01 ~ 2016.11.20
- **공모분류** : 영상/사진/체험/참여
- **공모주제** : “아름다운 간판” 콘텐츠 (사진 1세트, *원고)
 - ‘참여하기’ 게재
 - *1세트 : 같은 간판을 근거리(간판) 및 원거리 (간판 주변거리 or 건물전체)로 찍은 각 1장
 - 국내·외 옥외광고 우수작 및 화제 간판 소개
 - 국내·외 예쁜 간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소개 등
 - 시대별 및 지역별 간판 소개
- **상금** : 대상 200만원, 총상금 3천만원 이하
- **홈페이지** : www.signfrontier.net
- **문의처** : 02-3274-2098



2016 제 9회 경찰청 안보사랑 콘테스트 공모전

- **주최** : 경찰청
- **접수기간** : 2016.03.14 ~ 2016.05.02
- **공모분류** : 디자인, 영상 / 사진, UCC / SOUND, 예체능, 문학 / 수기
- **공모주제** : 안보 광고영상, 안보사랑 CM송, 북한이탈주민 체험수기, 안보홍보 포스터, 안보사랑 글짓기
 -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공익적 내용
 - 북한의 실상, 남한에서의 자유로운 삶
 - 안보사랑과 국가안보, 평화통일
- **상금** : 대상 250만원, 총상금 3천만원 이하
- **홈페이지** : www.anbosarang.co.kr
- **문의처** : 02-3150-1487



제 4회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 **주최** : 교보문고, 북이십일 아르테, 더스토리웍스, SM C&C, 서강대학교
- **접수기간** : 2016.02.29 ~ 2016.05.30
- **공모분류** : 문학 / 수기
- **공모주제** : 장르 및 내용 제한 없음
 - 중장편 원고 (A4 70매 이상)
 - [가산점] 완결된 원고 / 영화, 드라마, 웹툰 등 2차 콘텐츠로 발전 가능한 작품
- **상금** : 대상 2000만원, 총상금 5천만원 이하
- **홈페이지** : story.kyobobook.co.kr/story/
kyoboStoryPlatform.ink
- **문의처** : contest@kyobobook.co.kr



제 3회 글로벌 창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

- **주최** : 경제사회공유가치창출연구원
- **접수기간** : 2016.03.14 ~ 2016.05.08
- **공모분류** : 영상 / 사진 / UCC
- **참가대상** : 1인 크리에이터의 효율적 발굴과 파워 크리에이터로서의 발전을 위한 3단계 부문별 참가자 구분
 - **Beginner** : 1인 창작자로서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 학생
 - **Amateur** : 1인 크리에이터에 업으로써 관심이 있거나, 1인 콘텐츠 제작 및 방송을 시작하는 대학생 (전문학교 포함) 및 일반인
 - **Semi-Pro** : 1인 제작 및 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MCN 사업자 소속의 크리에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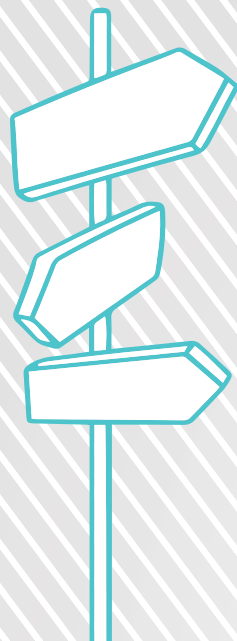
- **공모주제** : 웹드라마를 제외한 전분야 (게임, 키즈, 푸드, 컬처 등)
- **상금** : 대상 1000만원, 총상금 5000만원 이하
 - 공모전 선발 각 팀별 30만원 상금 지급(75팀)
 -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기획안 콘테스트 참가 기회 부여
 -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전문 교육 및 멘토링, 워크숍 제공
- **홈페이지** : www.creativekorea.or.kr/contest/view/20160311000001
- **문의처** : 02-317-6182



제 7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공모전

- **주최** : 교육부
- **접수기간** : 2016.03.07 ~ 2016.05.01
- **공모분류** : 디자인, 영상 / 사진, UCC / SOUND, 예체능, 문학 / 수기
- **공모주제** : - 규모의 편견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하는 소공인
 - ※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면서 제조업(일부업종 제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동영상, 포스터, 수필/지도자보고서
- **상금** : 대상 200만원, 총상금 1천만원 이하
- **홈페이지** : www.smallgiantk.blog.me
- **문의처** : 02-2124-3390





신한대학교 2015학년도 학위수여식, 1504명 학·석사학위 받고 사회 진출

신한대학교 2015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월 15일 신한대학교 제1캠퍼스 도봉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전문학사 1000명, 학사(한북대학교) 387명, 평생중심대학 계약학과 89명, 석사 28명 등 1504명이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특허법률학과 경설에 학생이 총장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74명의 학사와 석사가 설립자(강신경 목사)상, 이사장상, 대학원장상, 경기도지사상, 국회의원상, 지자체단체장상 등을 수상했다. 김 총장은 “신한대학은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자마자 3년이 채 되지 않아 경기북부를 넘어 수도권의 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히고 “신한인으로 정든 캠퍼스를 떠나는 졸업생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한인’의 긍지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희원 기자〉



종합대 출범 3년차 신한대학교, 2016년도 시무식 개최



신한대학교는 지난 1월 4일 의정부 캠퍼스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갖고 도약의 한 해를 다짐했다. 종합대학 출범 3년 차를 맞아 열린 이날 신년하례를 겸한 시무식에는 ‘신한 패밀리’ 350여명이 모두 참석해 미래창조의 대학을 지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이 자리에는 신홍학원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가 설립한 김천대학, 신안산대학 등 유관 교육기관과 교회 및 보육시설 관계자, 지역유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웅비의 나래를 펴는 신한대학의 발전을 기원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는 신홍학원 반세기의 전통과 역사를 발판 삼아 기적과 통합을 위해 모두 함께 땀 1년이자 미래의 신한인을 위해 자긍심을 가지고 한발 한발 도약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그 결과 신한대학교는 종합대학 출범 3년차에 진입하면서 우수한 인재가 꿈꾸는 수도권의 중심대학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 돌봄 서비스 동두천시와 3년 위탁연장

신한대학교가 2016년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지정 됐다. 지역사회에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동두천시의 위탁으로 펼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신한대학교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이용자 가정을 성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다시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 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 다자녀 가정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보육시설의 하원지도, 놀이 활동, 임시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민지 기자〉



신한대-포천 노아의 집 MOU 체결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설

신한대학교는 지난 1월 27일 의정부에서 경기도 포천소재 사회복지기관인 노아의집과 사회복지분야 활성화와 상호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산학 협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한대학교 이하나 비서실장, 평생학습중심대학 송운홍 학장, 사회복지학과 정정순 학과장, 송정애 교수가 참석했으며, 노아의집에서는 김창언 원장, 성호진 사무국장, 행복한노인복지회 탁순자 교수가 참석했다. 신한대학교는 협약을 계기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산업체 강의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과정은 현장중심으로 효과를 높여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롤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김민지 기자〉



국가장학금관리 우수대학 선정

신한대학교가 2015년 국가장학금 대학 현장모니터링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운영관리 효율성’, ‘회계집행 적절성’, ‘사후관리 타당성’ 등 3개 분야 7개 부문 24개 항목별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40개 대학 가운데 신한대학교를 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고 1월 18일 밝혔다. 현장 모니터링은 지난 7월 신홍대학, 한북대학, 신한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1유형)과 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2유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국가장학금의 운영과 관리현황을 점검해 정부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홍예지 기자〉



신한대 후원 한국군상담복지학회 학술세미나 군 장병을 위한 복지적 접근 방안 토론

신한대학교가 후원하는 한국군상담복지학회는 지난 2월 20일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에서 한국군상담복지학회 2016년 상반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술세미나에서는 한국브레인코칭연구소장 김충식 부회장이 ‘뉴로피드백의 효과 검증’, 병영 생활 전문상담관 허경운씨가 ‘동성애자들의 병영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좌장으로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유중원 관장, 서경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최용득 교수가 참석했으며, 신한대학교 서종표 부총장, 군정책자문위원 조영빈 교수 등은 내빈으로 참석했다. 서종표 부총장은 “신한대학교는 한국군이 건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국군상담복지학회와 한국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반지민 기자〉





신한대-한국표준협회 MOU 체결지역 우수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신한대학교는 지난 2월 26일 신한대학교 제1캠퍼스 본관에서 한국표준협회와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 특성화사업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신한대학교 김병욱 총장과 한국표준협회 백수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게 된다. 한국표준협회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신한대학의 특성화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증, 교육, 진단 및 OJT 지원을 하게 된다. 김병욱 총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표준협회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우수인재를 기르는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등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의정부 어린이위생, 신한대가 책임진다!

신한대학교가 의정부시의 위탁으로 운영하는 의정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동섭 신한대 교수)가 2월 29일 호원동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을 주제로 체험 놀이교육 ‘방방곡곡 친구야 같이 놀자’를 실시했다. 1부 ‘건강한 위생생활’에서는 배변 후 손을 씻지 않았을 때 상황과 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코모형 교구를 이용해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을 교육하고, ‘건강한 단맛’의 주제로 진행된 2부의 영양 교육은 토끼(단당류)와 거북이(다당류) 동화를 재구성하여 당의 역할과 종류를 체육놀이교육으로 진행했다. ‘방방곡곡 친구야 같이 놀자’는 위생영양 체험 놀이교육으로 동별로 진행되며 4월에 가능동, 8월에 장암·신곡동, 11월에는 의정부 동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권혜미 기자>



신입생 모의토익시험 우수학생 15명에 장학금

신한대학교 국제어학센터(센터장 전현주 교수)는 2016학년도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토익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간호학과 최홍운 학생 등 15명에게 장학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의정부 캠퍼스 국제어학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홍운 학생은 최우수상을, 치위생학과 은정민 학생 등 7명은 우수상, 간호학과 최승주 학생 등 7명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최우수 학생은 20만원, 우수학생은 15만원, 장려상을 받은 학생은 1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받았다.

<김민지 기자>



신한대 평생중심대학 5사단 장교 132명 교육군 인성상담사 과정 수료식 거행

수료식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5사단 초급간부 132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군창의인성상담사 과정은 신한대학교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군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2015년 신한대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에 개설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양성 과정으로, 수료생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 까지 장병들의 심리와 정서를 이해하고 이들의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성상담 기법을 익혔다. 또한 신한대학교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의 사건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군 생활 부적응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창의인성상담사 제도를 통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1군단에 ‘신한대학교 공개토분교장’ 안보경영학과 장병 재학생 교육공간으로 활용

1군단 장병들을 교육하는 전용강의실인 ‘신한대학교 공개토분교장’의 문을 열었다. 이 강의실은 지난 2월 신한대학교와 1군단이 신한대학교에 안보경영학과(계약학과)를 개설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신한대학교는 계약학과 개설 이후 1군단 701 특공연대 간부 생활관 내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했으나, 수업에 어려움을 겪어 1군단과 함께 기존 공간을 개보수해 강의실을 마련했다. 새로 개설된 공개토분교장은 강의실 2개, 교수연구실, 휴게실로 구성되어 이번 학기부터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중심대학에서 운영하는 계약학과 전용 강의실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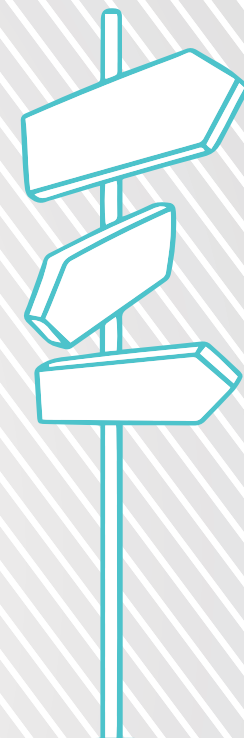
<박은영 기자>



베트남교사 초청 연수교육 수료식

가		(KOICA)			
3	15				30
	12	3	90		
				(NCS)	
				2014 1 KOIKA	
가					

<변진영 기자>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대원	시설지원팀	박정현	국제교류1팀	임민경	간호학과	경기도안경사회	
강정원	유아교육과	박주원	유아교육과	임승희	사회복지학과	김지희	교외인사
강종오	치위생학과	박현수	공간디자인전공	장은주	유아교육과	대성미장	
고광칠	시설지원팀	박현철	산업디자인전공	장인봉	공병행정학과	도구건설	
고영아	국제어학과	박효철	공간디자인전공	장용운	글로벌통상경영학과	동성크리너	
곽영암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배시애	교양학부	장정순	사회복지학과	동진고속관광(주)	
권영길	교양학부	배영금	국제어학과	장형성	자동차공학과	삼진지디에프	
금경란	국제교류2팀	변희진	산업디자인전공	전법주	에너지환경공학과	송내교회	
김경희	유아교육과	서수연	뷰티헬스전공	전영주	홍보팀	아이들과미래	
김경희	산업디자인전공	송기상	대외협력팀	전현주	국제어학과	양지들	
김기순	산업디자인전공	송진희	컴퓨터공학전공	정성균	치위생학과	우성치킨	
김기형	대학본부	신현근	에너지환경공학과	정세훈	안경광학전공	유혜숙	교외인사
김남중	치기공학과	신현정	컴퓨터공학전공	정윤경	총무인사팀	이석재	총동문화
김문규	학술정보팀	오병철	공간디자인전공	조성심	사회복지학과	일장환경	
김미숙	간호학과	오이균	공병행정학과	조성운	시설지원팀	전원식당	
김민정	뷰티헬스전공	오흥진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조은아	수업학적팀	정동제일교회	
김민화	유아교육과	유병영	행정지원처	조혜선	유아교육과	(주)부라보스튜디오	
김봉건	입학관리팀	유지오	자동차공학과	주강훈		카네이션요양병원	
김상욱	교목팀	유진현	호텔조리전공	주대환	평생학습중심대학	플래너들잔치	
김선영	에너지환경공학과	윤상근	평생교육원	진선범	수업학적팀	해구탐차	
김옥희	교양학부	윤호승	임상병리학과	최병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هدو그룹	
김용환	에너지환경공학과	이강석	시설지원팀	최에스터	뷰티헬스전공	홍은식당	
김재건	에너지환경공학과	이금숙	사회복지학과	최지연	학생상담센터	황소화로구이	
김종록	시설지원팀	이기석	자동차공학과	최창영	국제어학과	성모안과의원	
김주연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기찬	교양학부	한경희		의정부성모병원	
김주현	입학관리팀	이남현	대학원 교학팀	한수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김준기	총무인사팀	이대성	정보화센터	형서윤	재무회계팀		
김진호	국제교류2팀	이대홍	교무연구처	홍경옥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김창희	산학협력단	이동원	학생지원팀	홍수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김창희	컴퓨터공학전공	이명호	호텔조리전공	황만수	컴퓨터공학전공		
김현숙	간호학과	이상기	로고스봉사단	황보상원	공병행정학과		
김현영	간호학과	이승영	산학협력단	황재석	에너지환경공학과		
류재경	치기공학과	이운배	뷰티헬스전공	박경순 외 4명	대학원		
류진아	사회복지학과	이은정	호텔조리전공	손덕한 외 7명	대학원		
박노현	관리운영처	이재은		심은희 외 4명	대학원		
박문찬	안경광학전공	이정규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사)대한안경사협회			
박용민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정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주)오토기기			
박정우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정재	치기공학과	간호학과동문회			

	☐ 동문		☐ 재학생		☐ 학부모		☐ 법인(기업)		☐ 일반인(비동문)		※ 중복체크 가능	
인적사항	성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명				
								직위				
	주소	(주택)								(TEL)		
		(직장)								(TEL)		
	E-mail							휴대전화				
우편물 수령지	☐ 주택 ☐ 직장						기부 추천인					
약정	총액	금()원 (₩)										
	기간	20 년 월 일부터 총()회 / 월()원씩										
	기부금 용도	☐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 지정발전기금		()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 CMS	CMS(기부자의 동의하에 기부자 계좌에서 자동출금해기는 방식)										
		결제일	☐ 일			결제은행			은행			
		결제 계좌번호										
		예금주명	☐ 기부자명과 동일 ☐ 기부자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아래내용 작성) 예금주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 무통장 입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입금자명	☐ 기부자명과 동일 ☐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이후의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국제교류원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3 (Fax 3169)
- 우편 : (480-701)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더 센!

창조와 융합교육 | 글로벌 현장교육 | 신한(信韓)류 미래교육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인재양성을 창학이념으로 출발한 신한대학교!

지난 반세기 동안 기술인재 양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 센세이션얼한 신한대학교의 비전을 펼쳐 나갑니다!